

# 광주시의회, 통합특별시 의원정수 확대 국회에 요구

## 신정훈 행안위원장-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 간담회 인사청문회 임명동의, 감사위 설치, 조례제정 확대도

광주·전남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자치분권 확대 등을 위해 의원정수를 늘려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은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의견서에는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산하 설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통합의

회의 위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이 담겼다.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4일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조정은 필

요하다”며 “막강한 권한의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법에 담지 않으면 정수 조정이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통합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안위 및 정개특위와 협의해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시·군·구에 상당 부분 이양하는 방안이 특별법

에 담겨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 의회 역시 그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회처럼 예산과 법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 채은지 부의장, 최지현 회복위원장, 박필순 산간위원장, 조석호 예결특위위원장, 홍기월·임미란·이명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치구의회에서는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

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김현숙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임성화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고영임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향후 통합 특별법을 다룰 국회 행안위의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국회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등 입법 과정에서 시의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與 지선 전략위원장에 황희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황희 의원(사진)을 선임했다.

3선인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다. 전략공천위의 간사는 이병진 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맡는다. 전략 공천은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공천 방식이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서 일정 비율까지는 선거에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경우 경선이 원칙이나,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는 전략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재 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대법원의 당선무효청 판결에 따른 이병진(경기 평택을)·신영대(전북 군산 김제부안갑) 전 의원의 지역구 등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우치동물원에 ‘판다’ 입식을”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접견을 갖고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광호 도당 부위원장, 신안군수 선거 출마 선언

### ‘민생 최우선’ 군정 비전삼아

정광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사진)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신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의 문제는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정과 책임이 부족했기 때문에 누적돼 왔다”며 “이제는 누군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끝까지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안군의원과 신안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도서지역 현장을 누비는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정 부위원장은 “비가 오면 잠기는 길, 배가 끊기면 멈춰서는 삶, 어업 피해 앞에서 막막해지는 어민의 현실을 현장에서 보아왔다”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군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신안이 직면한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과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갈등, 섬 교통과 이동권 문제, 기후위기에 따른 김 양식과 어업 위기, 고



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공백을 제시했다. 그는 “찬반 구호만으 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며 “군민 동의와 공정한 보상, 투명한 결정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정 비전으로는 ‘민생 최우선 군정’을 내세웠다. 의료·복지·돌봄·교통·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실질 정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7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신안의 현실에 맞춘 현장 중심 돌봄·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뉴욕서 K-수묵 다양성·가능성 알렸다

### 전남도·뉴욕한국문화원 개최 ‘뉴욕 뉴 잉크’ 특별전 성료 인류 보편문명 확장성 알려

전남도와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이 현대미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뉴욕 수묵 특별전 ‘뉴욕 뉴 잉크(New York, New Ink!)’를 공동 개최해 케이(K)-수묵의 다양성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알렸다.

전시는 지난 1월 31일까지 21일간 열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전통 수묵의 미학과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통해 케이-K수묵의 예술적 확장 가능성을 해외 무대에 소개했다.

유재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과 스테파니 김(김승민) 큐레이터가 공동 기획했으며, 이이남·한영섭·정광호·강운·설박(Sul Park)·구승윤·케이윤(Kay Yoon)·김상연 등 총 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회화, 사진, 퍼포먼스,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수묵 예술이 지닌 전통성과 동시대적 해석을 입체적으로 제시했다.

전시 기간 미국 동부 지역에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는 악조건에서도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며, 한국 현대 수묵에 대한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했다. 이는 수묵이 전통 회화 장르를 넘어 동시대 미술



뉴욕 수묵 특별전

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개막식에는 론 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현지 미술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시를 축하했으며,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교류 확대와 문화적 파급력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뉴욕에서 열린 이번 특별전은 수묵이 과거의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동아시아 회화의 미학과 방법론을 인류 보편 문명의 예술 언어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뉴욕 수묵 특별전은 한국 수묵미술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해외 전시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라며 “전남도는 케이-K수묵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 특별전과 다양한 국제 전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6·3 지방선거 출판기념회 잇따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7일 출판기념회에서 장휘국, 장만재 전 광주전남 교육감과 손을 잡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김대중 전남교육감 ‘미래교육’ 비전 제시 장만재·장휘국 전 전남·광주 교육감 참석 ‘눈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7일 오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두 번째 저서 ‘김대중의 글로컬 미래교육’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남·광주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주철현·김문수·신정훈·민형배 국회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김태균 전남도의장과 전남도의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를 연 장만재 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감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에 도전장을 던졌던 문승태 전 순천대 부총장도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는 기존 출판기념회와 차별화된 구성으로 관심을 모았다. 저서에 담긴 김 교육감의 고민과 전남·광주 교육의 미래 방향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해 상영했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향후 출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에는 AI 사회자가 등장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 교육감은 오는 21일 나주 동신대학교, 28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김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7일 오후 완도 청혜전 스포츠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

## “완도 미래, 군민과 함께 고민하겠다” 김신 출판기념회 성료 3000명 운집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선거 출마가 예정된 김신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7일 오후 완도 청혜전 스포츠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 단순한 지지에 과시보다는 정책 문제 의식과 지역 미래 비전을 전면에 내세운 자리로, 향후 완도군수 선거 구도의 한 축을 형성할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국회의원과 최종윤 전 국회의원, 송금호 작가가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황병성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서영교 의원은 영

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힘을 보탰다. 행사장에는 지역 주민 3000여명이 운집해 김 부의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행사 형식이었다. 통상적인 출판기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시간 연설 대신, 저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담 방식이 채택됐다. 김신 부의장은 “이번 출판기념회는 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완도군의 미래를 군민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라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7일 광양성황스포츠크터 다목적체육관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남자의 일생’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 “광양의 미래발전 동력은 결국 사람” 정인화 시장, ‘그 남자의 일생’ 북콘서트 성료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7일 광양성황스포츠크터 다목적체육관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남자의 일생’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권항열·주철현·민형배 국회의원도 강기정 광주시장도 함께 했다. 320쪽 분량의 ‘그 남자의 일생’은 저자가 4년간의 시장 생활뿐만 아니라 30년간의 공무원 생활과 4년간의 국회의원 시절 때 보고 느끼고 겪은 여러 이야기를 수필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시와 유머도 책 중간에 수록했다. 저자는 지난해 9월 국제자매도시 오스트리아 린츠시를 방문했을 때 ‘렌트

스 뮤지엄’ 미술관 내에 있는 초상화를 황스포츠크터 다목적체육관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남자의 일생’으로 정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로마를 방문했을 때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화장했던 장소에 시민들이 지금까지 꽃을 바쳐오고 있는 목격담도 기술하고 있으며 ‘구봉산권 종합관광’ 개발에 대한 자신의 개발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제에 발간 한 책은 시민과 깊이 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광양의 발전 동력은 결국 사람이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